

말과의 교감, 재활·심리 치료에 굿!

美, 6만6000명 재활 프로그램 참여
獨, 의료·교육·심리 등 세분화 운영
마사회, HETI 대회서 연구결과 공개

재활승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말과 함께 운동하는 재활방법의 하나다. 승마를 하면 말 위에서의 움직임이 평지 걸음걸이와 상당히 유사해 걷는 것과 같은 신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말의 비언어적 행동을 이해하며 소통능력도 기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재활승마의 효과에 주목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널리 시행해왔다. 말을 매개로 한 재활방법이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분명한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다.

●미국 6만6000명 재활승마 경험

미국의 경우 재활승마협회를 중심으로 신체적인 재활에 중점을 둔 재활승마 치료, 정서 발달 및 기술습 향상을 위한 재활승마 강습, ADHD 청소년과 퇴역군인을 치유하는 말 매개 학습(Equine Assisted Learning)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6200명의 참전용사를 비롯해 현역군인, 장애인, 청소년 등 6만 6000여 명이 재활승마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

독일은 재활승마를 특성에 따라 의료, 교육·심리, 스포츠 등으로 세분화해 운



렛츠런 승마힐링센터에서 어린이가 재활승마를 체험하고 있다. 재활승마는 해외에서 큰 효과를 거두면서 의료부터 교육심리,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체적 능력의 증진뿐만 아니라 언어능력 향상, 사회적응력, 집중력, 인지능력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 유치원이나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등 적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한국마사회도 재활승마 및 말 매개 학

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100명 이상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말과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과 신체 활력을 되찾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세세브란스병원과 한국마사회가 MOU를 체결하

고 발표한 논문에도 따르면 재활승마는 뇌성마비 아동의 대동작 기능과 기능수행 능력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가 공동으로 연구한 ADHD 아동에 대한 재활승마 효과 연구에 따르면 재활승마 치료 반응률이 약물 치료 반응률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한다.

●'HETI 서울대회' 최신 연구결과 공개

한편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HETI 2021 SEOUL 세계대회'에서는 재활승마의 새로운 시대, 재활승마 스포츠 확충, 말 복지 등 3가지 주제로 재활승마 분야의 최근 확장 추세와 추후 발전상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울대회의 '재활승마 스포츠 확충' 세션에서는 영국의 비영리기관인 턴어바웃 페가수스 대표 트레이서 파-톰슨과 미국 콜롬비아대학 메디컬 센터의 유발 네리아 교수가 각각 위기청소년의 대인관계 적응과 참전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적용된 말 매개 치료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HETI 세계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행사와 세션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말산업 정보포털사이트 호스피아(www.horsepia.com) 및 HETI 2021 SEOUL 홈페이지(www.heti2021.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영상으로 만나는 말 그림 특별전 유튜브 채널 마사회TV서 즐겨요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은 2021년 특별전 '옛 그림 속 말이 전하는 말 (소장 회화전)'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평면인 회화 작품의 특성을 고려해 동영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재 윤두서와 그의 아들 윤덕희 부자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기마인물도' 2점을 비롯하여 심사정의 '유마도', 근대 화단을 이끈 안중식의 '유하신마도', 지운영의 '준마도', 강필주의 '백락상마도(사진)' 등의 회화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 중에는 화가이자 생활사가였던 이여성이 '무예도보통지', '경국대전', '용비어천가' 등 문헌고증을 통해 그림으로 재현한 '격구도', 무신들이 애호했다는 '호렵도', '삼국지연의도'도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작품은 학산 윤재홍의 찬이 더해진 심사정의 '유마도'다. 고삐를 끌어당기는 인물과 버둥거리며 순응하지 않는 말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자유롭고 자 하는 화가의 기세를 느낄 수 있다.

마도는 예로부터 문인화가와 직업화가들이 모두 즐겨 선택했던 화제다. 특히 조선시대 말을 가장 잘 그렸다고 알려진 윤두서와 그의 아들 윤덕희의 '기마인물도'는 실제로 관직에서 멀어진 남인집안이지만 그림 속에 관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거나 부임하러 가는 모습을 담아 출세, 임신양명 등의 유교적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는 모두 4편으로 나뉘어 한국마사회 유튜브 채널 '마사회TV'에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영상 공개에 맞춰 감상평 댓글을 남긴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6월 4일까지 진행한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벨로드롬의 살아있는 전설들

경륜킹 정종진, 그랑프리 5연패까지?

그랑프리 4연패·최다 50연승 보유
경륜1기 홍석한, 600승까지 -72승
장보규, 선행 승부로만 322승 기록

1994년 10월 15일, 서울 잠실 올림픽 벨로드롬에서 첫 레이스를 시작해 올해로 27년째를 맞은 경륜. 창설 30년을 바라보는 경륜의 역사에는 여러 선수들이 땀으로 이룩한 빛나는 기록이 있다. 그 중에는 여전히 현역으로 레이스를 달릴 때마다 새로운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레전드'들도 있다.

●그랑프리 4연패, 정종진

우선 대표적인 선수가 자타공인 경륜의 절대강자 정종진(SS 20기 김포 34세)이다. 정종진이 세운 여러 기록 중에 넘보기 힘든 것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랑프리 대상경륜 4연패다. 종전 조호성(11기)의 3연패를 뛰어 넘는 대기록으로 앞으로도 쉽게 깨지기 힘든 업적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휴장이 반복되며 진행되는 레이스에서도 공백기가 느껴지지 않는 절대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만약 올해 열린다면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랑프리 5연패에 도전하게 된다.

정종진이 세운 또 다른 대기록은 2017년 7월 7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거둔 50연승이다. 역시 종전 조호성의 47연



승을 깬 최다연승으로 기간에서 볼 수 있듯이 1년여 동안 정종진은 누구에게도 1위를 넘기지 않았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한 노력이 없었으면 이루지 못할 기록이다. 현재 정종진은 33연승을 거두며 자신의 연승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500승 홍석한, '선행귀신' 장보규

홍석한(A1 8기 유성 46세)은 2001년 첫 승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528승을 거두고 있다. 지금은 체력적인 면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우수급에서 승수를 쌓는데 다소 부진하지만, 여전히 꾸준한 자기관리와 성실한 훈련으로 후배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더 선수생활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600승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경륜 경주는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맨 앞에서 질주하는 선행으로는 승수 쌓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장보규(A1 1기 대전 47세)는 선행 승부로만 현재까지 322승을 기록하고 있다. 본인의 누적승수 436승 중 73%가 넘는 비율로

그가 왜 '선행귀신'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장보규가 경주에 편성되면 팬들은 "이 경주는 장보규가 선행을 갈거야"라고 분석한다.

추입 전법의 대가 김치범(A1 9기 부산 40세)은 추입승수 1위라는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모든 스포츠에서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바로 역전승이다. 경륜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는 전법은 추입이다. 현재 김치범이 본인 선행승수의 10배가 넘는 추입 승수를 기록해 1위인 홍석한(260승)의 기록을 조만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근우 명품경륜 승부사수석기자는 "자신이 세운 그랑프리 대상경륜 4연패와 50연승을 다시 뛰어넘으려는 정종진,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자신의 기록을 갈아 치우는 홍석한 장보규 김치범, 이외에 최고령의 허은희(B1 1기 팔당 56세) 등 많은 선수들이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대기록으로 인해 팬들은 더욱 경륜의 매력에 빠져들 수 것이다"고 말했다.



◀ 정종진

경륜·경정

승률 83.3%·연대·삼연대율 100%
경정 7기 심상철, 수면 위의 최강자

2021시즌 경정이 4회차(2월 24일)부터 10회차(4월 8일)까지 경주를 진행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휴장 중이다. 이 기간 좋은 성적을 보여준 경정 최강자들을 살펴봤다.

경정은 선수의 실력을 토대로 네 개의 등급(A1 A2 B1 B2)으로 분류해 출전 기회를 주고 있다. 높은 등급을 받는 선수에게 출전 기회가 많이 부여된다. 자연 상위권 선수들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4회차부터 10회차 성적을 기준으로 랭킹 10위를 살펴보면 A등급 선수들이 주도하고 있다. 선두는 단연 심상철(A1 7기 40세)이다. 총 6회 출전에 1착 5회, 2착 1회를 기록해 승률 83.3% 연대율 100% 삼연대율 100%로 경정 최강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 뒤를 관록의 선배들을 제치고 12기 조성인(A1 12기 34세)이 총 6회 출전에 1착 4회, 2착 1회, 3착 1회로 승률 66.7% 연대율 83.3% 삼연대율 100%를 기록하고 있다. 8기 대표주자인 한종석(A2 39세)도 승률 66.7% 연대율 83.3% 삼연대율 100%를 기록하고 있다.

여자 선수 중에서는 반혜진(A2 10기 35세)이 두각을 나타냈다. 승률 66.7% 연대율 83.3% 삼연대율 100%를 기록하며 강자의 면모를 발휘했다.

2021시즌을 B등급으로 시작했지만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상위 등급에 도전하는 선수들도 있다. B2 등급으로 좋은 출발을 보이는 선수 세 명이 있는데 구분선(14기 32세) 김민준(13기 34세) 이미나(3기 43세)는 4차례 출전해 각각 1착 2회, 2착 1회로 승률 50% 연대율 75% 삼연대율 75%를 기록하며 상위 등급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